

‘현우경’ 이야기 (49)

선사 태자와 악사 왕자 ②

여의주 얻은 태자에게 검은 그림자가...

선사태자의 손에 금강저를 쥐어준 장님은 자신을 모래에 묻어달라는 말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

선사 태자는 장님이 일러준대로 길을 따라 갔다. 그리고 드디어 황금섬을 찾았다. 밧을 내리고 일행들은 섬 안으로 들어갔다. 섬은 모래는 온통 금가루요 산은 황금으로 된 신기한 곳이었다.

같이 간 일행들은 황금모래와 황금산을 보고 뿔뿔이 기뻐했다. 모두들 주머니에도 모자에도 황금을 주워담으며 정신없이 황금을 찾아다녔다. 태자는 장님이 일러준대로 섬을 찾아갔다. 섬 앞에 당도해 금강저로 문을 두드리니 그 안에 오백 천녀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선사가 들어서자 천녀들은 무릎을 굽혀 손에 들고 있던 보배 구슬을 태자에게 내밀었다. 태자는 장님이 일러준대로 그중에서 가장 뛰어난 보배구슬 하나를 집었다. 그것이 바로 여의주였다.

태자가 여의주를 손에 쥐는 순간 세상은

온통 광명으로 빛났다. 그리고 천녀들이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며 선사 태자를 축복해주었다. 이런 선사를 지켜보는 이가 있었다. 바로 악사 왕자였다. 악사는 그 여의주를 꼭 갖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여의주를 갖는다는 것은 세상의 모두를 갖는 것임에 분명해 보였다.

“우리 부왕은 은혜와 사랑이 공평하지 못해 형만 사랑하고 내게는 사랑이 없다. 지금 우리 형제가 함께 보물을 찾으러 왔다가 형은 진기한 보물을 얻고 나는 빈손으로 돌아가면, 부왕은 그때부터 나를 더욱 천대할 것이다”

악사 왕자는 마음이 초조해 견딜 수가 없었다. 그리고 악사의 마음속에는 질투와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선사태자 일행들은 황금섬에서 하룻밤을 머물고 다음날 떠나기로 했다.

깊은 밤이 왔다. 별도 달도 어딘가로 숨어버린 컴컴한 밤이었다. 선사는 품속에 여의주를 안고 달콤한 잠에 빠져들었다. 이 여의주만 있다면 백성들을 고통 속에서 구원해줄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어 행복



삼화·강병호

하기만 했다.

그때 그림자 하나가 선사 가까이 다가왔다. 그리고 그림자의 두 손은 선사의 두 눈을 가시로 찌르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내 그림자의 손은 악사의 품에 있던 여의주를 빼앗았다. 선사는 이렇게 외쳤다.

“악사야! 악사야! 여기 도적이 있다”

하지만 악사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 도적

이 바로 악사였기 때문이다. 악사는 선사를 바닷속으로 집어 던져 버렸다. 선사는 계속해서 악사를 불렀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그때 바다의 신이 이렇게 말한다.

“악사는 당신을 도와주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당신의 눈을 찌르고 당신을 바다 속에 던진 사람이 바로 악사니까요”

“아닙니다. 제 동생 악사는 그럴 일을 할

사람이 아닙니다”

“악사는 그런 일을 할 만큼 태자님을 질투하고 있습니다. 그의 질투가 오늘 당신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아닙니다. 제 동생은 절대 그럴 리 없습니다”

태자는 몸도 마음도 너무나 고통스러워 견딜 수가 없었다. 그리고 그의 몸은 어느새 파도 속으로 휩싸여 떠내려가면서 정신을 잃고야 만다.

다음날 아침 선사 태자는 정신을 차렸다. 눈앞은 캄캄했고 어떤 것도 보이지 않았다. 손으로 더듬어 보니 모래가 잡혔다. 그리고 비릿한 짠내가 나는 것으로 보아 어디 바닷가에 다다른 것임에 분명했다.

손으로 주변을 더듬던 선사는 지나가던 어부의 다리를 잡게 된다. 깜짝 놀라 선사를 쳐다보던 어부는 선사의 눈에 박힌 가시를 보게 된다. 어부는 선사를 집으로 데려가 가시를 뽑고 치료해주었다. 그리고 선사는 어부가 주는 죽을 먹고 몸을 조금씩 회복해 나아갔다.

선사는 어부의 형편이 그리 넉넉치 않음

을 느꼈다.

“당신은 무엇을 해서 생활을 해 나갑니까?”

“저는 물고기를 팔아 생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 그랬군요. 이제 제 몸은 회복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신세를 질 수 없습니다. 저는 이제 제 스스로의 길을 갈까 합니다”

“이 몸으로 어디를 가려구요?”

“섬 안으로 가서 구걸을 하며 지낼까 합니다”

“구걸이라니요! 이 몸으로 어떻게 구걸을 한단 말입니까? 절대로 안됩니다. 당분간은 여기서 머무르십시오”

“저를 가없이 여기신다면 저에게 거문고 하나를 사주십시오. 저는 거문고를 아주 잘 탄답니다. 그것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어부는 더 이상 선사의 뜻을 꺾을 수 없었다. 그렇게 거문고 하나를 사서 선사의 손에 쥐어 주었다. 이제 선사는 저자거리로 나서게 되었다.

(다음호에 계속)

구성=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제2회 한국불교 흥익범패단 학인모집

소승은 한국불교 범음법패 및 불교무용(승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10여년을 연구하고 공부해 온 범음승으로서 한국불교 전통법패단을 "한국불교 흥익범패단"으로 이름 짓고 창단하였습니다. 뜻 있는 분들에게는 직접 오셔서 먼저 청강해 보시고 접수는 뒤에 하셔도 됩니다. 성적이 우수한 분은 한국불교 흥익범패단에 단원으로 인정하고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을 드립니다.

강의 내용

1. 기초 : 삼귀의, 사홍서원, 거불, 향수해례, 사성례, 도량석, 종송, 조석예불, 사시불공, 사물.
2. 중급 : 주 들레시간 ~ 셋레시간 : 천도재의식, 시련, 대령, 관육, 신증청, 상용영반, 관음시식, 고혼소, 봉청 (깃소리), 39위, 복청계, 고혼청, 현좌계, 진령계, 칠인사구성, 가영, 향화청, 고아일심 귀명경제긴소리, (짧은소리) 화청
3. 상급 : 매주 넷레시간 : 범패의식-요잡바라, 천수바라, 사다라니바라, 화의제바라, 도량계, 다계, 범고흥, 호적
4. 고급 : 2년이상 된 자로서 시다림, 다비, 점안식, 방생, 생전 예수제, 종사이운, 불상이운

- 접수기간 : 수시모집
- 회 비 : 월 10만원 (1년 선불 100만원)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부 (본원에 비치)
- 장 소 : 김해사암연합회 불교문화원 3층 범당
- 주 소 : 김해시 흥동 7-5번지
- 전 화 : (055)322-0088, (055)332-1675
- 강 주 : 민지호 010-4466-3575

스님이 직접 만들었습니다..

마이크 목걸이

A 타입 영주곡기 25mm ₩ 65,000

B 타입 영주곡기 16mm ₩ 55,000

A+B (1set) ₩100,000

주문전화

구 미 미륵사 (지연) 010-8631-3527

팔공산 정원사 (성봉) 016-849-8889

거제도 정도암 (진각) 010-6657-5522

대구 포교사 (법일) 010-9591-8599

☆유☆무선☆금☆용☆

입금계좌(예금주 : 미륵사) 농협 351-0251-7333-73 우체국 700914-02-063333

★ 꿈이 이루어 집니다! ★

보현사신협과 함께하면

- 사찰대출 전문 불교은행 -

우수조합원초청 보현사신협

대만성지순례 "그곳에 가고 싶다 Ⅲ"

2011. 10. 25 ~ 2011. 10. 29 (4박 5일)

문의전화 (053)428-1133

전문 상담 전무 서일영 010-3527-1037

상담 차장 정종철 010-2543-1037